

KEF 경총
KOREA
ENTERPRISES
FEDERATION

2021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

2020. 12.

< 조사개요 >

※ 「2021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」는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사(응답 기업 기준)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17일간 (주)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임.

< 요약 >

1. 응답 기업의 38.7%는 불확실성으로 「2021년 경영계획 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」고 답변. 경영계획 수립 기업*의 2021년 경영계획 기초는 「긴축경영」 49.2%, 「현상유지」 42.3%였고, 「확대경영」은 8.5%에 그침.

* 2021년 경영계획의 '최종안을 확정(32.5%)'하거나 '초안은 수립(28.8%)'한 기업(응답 기업의 61.3%)

- ▶ 300인 미만 기업의 57.0%가 「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」고 답변
- ▶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'긴축경영'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(300인 미만 51.9%, 300인 이상 47.4%).
- ▶ '긴축경영'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투자 축소와 인력운용 합리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.

2. 경영계획 수립 기업의 60% 이상이 2021년 투자, 채용계획(올해대비)은 「축소」라고 답변

※ 2021년 투자계획(올해대비) : '축소' 60.0%, '금년(2020년)수준' 30.0%, '확대' 10.0%
2021년 채용계획(올해대비) : '축소' 65.4%, '금년(2020년)수준' 28.5%, '확대' 6.2%

3. 응답 기업의 44.8%는 2021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「2.5%초과~3.0%이하」로 전망. 응답 기업들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.8%

※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: '2.0% 이하' 8.0%, '2.0% 초과~2.5% 이하' 18.4%, '2.5% 초과~3.0% 이하' 44.8%, '3.0% 초과' 28.8%

4. 응답 기업의 37.3%가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시점은 「2023년 이후」라고 답변

※ 그 외 응답은 '2021년 하반기' 23.1%, '이미 회복함(올해 안에 회복 가능)' 17.9%, '2022년' 13.2%, '2021년 상반기' 8.5%

- ▶ 위기의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상당수 기업들은 경영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.

5. 응답 기업의 52.8%가 2021년 영업이익 「올해보다 감소」전망

- ▶ 응답 기업의 52.8%가 2021년 영업이익이 '올해보다 감소할 것'이라고 답변 ('올해보다 증가할 것' 27.8%, '올해와 유사할 것' 19.3%)

1

응답 기업의 38.7%는 불확실성으로 「2021년 경영계획 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」고 답변

경영계획 수립 기업의 2021년 경영계획 기조는 「긴축 경영」49.2%, 「현상유지」42.3%였고 「확대경영」은 8.5%에 그침

- 2021년 경영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응답 기업의 38.7%가 ‘2021년 경영계획 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’고 답변. 특히 300인 미만 기업의 57.0%가 ‘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’고 응답
 - 그 외 ‘최종안을 확정했다’는 32.5%, ‘초안은 수립했다(최종안 확정 전)’는 28.8%로 집계
 - 응답 기업의 61.3%는 2021년 경영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하거나 초안을 수립한 것으로 집계(2021년 경영계획 수립 기업)
 - 기업 규모별로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‘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’가 57.0%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,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‘최종안을 확정했다’가 49.5%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.
 - ※ 올해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0인 미만 기업들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2021년 경영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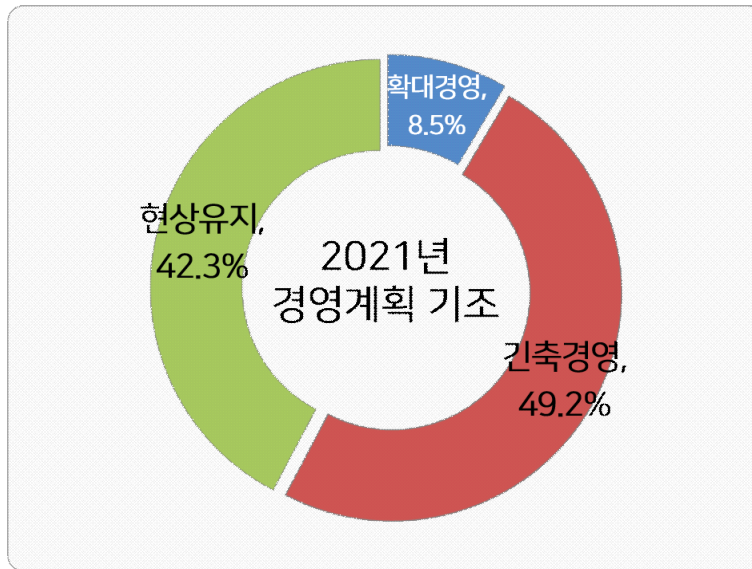
< 표 1. 2021년 경영계획 수립 여부 >

구분	전체	기업 규모	
		300인 이상	300인 미만
초안은 수립했다(최종안 확정 전)	28.8%	36.3%	23.1%
최종안을 확정했다	32.5%	49.5%	19.8%
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	38.7%	14.3%	57.0%

- 2021년 경영계획 수립 기업*을 대상으로 2021년 주된 경영계획 기조를 조사한 결과, ‘긴축경영’이라는 응답이 49.2%, ‘현상유지’라는 응답은 42.3%로 나타났고, ‘확대경영’이라는 응답은 8.5%에 불과했음.

* 2021년 경영계획의 ‘최종안을 확정’하거나 ‘초안은 수립’한 기업(응답 기업의 61.3%)

< 그림 1. 2021년 경영계획 기초 >



○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'긴축경영'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.

※ 300인 미만 기업 : 51.9%, 300인 이상 기업 : 47.4%

< 표 2. 2021년 경영계획 기초 >

구분	전체		
	300인 이상	300인 미만	
긴축경영	49.2%	47.4%	51.9%
현상유지	42.3%	38.5%	48.1%
확대경영	8.5%	14.1%	0.0%

○ 2021년 경영계획 기초를 '긴축경영'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투자 축소와 인력운용 합리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긴축경영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'신규투자 축소' 62.5%, '인력운용 합리화' 42.2% 순으로 높게 집계

< 표 3. 2021년 긴축경영의 구체적 시행 계획 >

구분	신규투자 축소	인력운용 합리화	생산규모 축소	사업부문 구조조정	유동성 확보	기타
응답률	62.5%	42.2%	37.5%	35.9%	17.2%	4.7%

주 : '긴축경영'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.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.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

2

경영계획 수립 기업의 60% 이상이 2021년 투자, 채용 계획(올해대비)은 「축소」라고 답변

□ 2021년 경영계획 수립 기업*을 대상으로 2021년 투자계획(올해대비)을 조사한 결과 '축소'(60.0%)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.

* 2021년 경영계획의 '최종안을 확정'하거나 '초안은 수립'한 기업(응답 기업의 61.3%)

○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2021년 투자계획에 대해 '축소' 60.0%, '금년(2020년)수준' 30.0%, '확대' 10.0% 순으로 집계됨.

○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'축소'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.

※ 300인 미만 기업 : 63.5%, 300인 이상 기업 : 57.7%

< 표 4. 2021년 투자계획(올해대비) >

구분	축소			금년 수준	확대		
	대폭 축소	소폭 축소			소폭 확대	대폭 확대	
전 규모	10.8%	49.2%	60.0%	30.0%	6.9%	3.1%	10.0%
300인이상	12.8%	44.9%	57.7%	26.9%	10.3%	5.1%	15.4%
300인미만	7.7%	55.8%	63.5%	34.6%	1.9%	0.0%	1.9%

□ 2021년 경영계획 수립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채용계획(올해대비)을 조사한 결과 '축소'(65.4%)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.

○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2021년 채용계획에 대해 '축소' 65.4%, '금년(2020년)수준' 28.5%, '확대' 6.2% 순으로 집계됨.

○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'축소'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.

※ 300인 미만 기업 : 69.2%, 300인 이상 기업 : 62.8%

< 표 5. 2021년 채용계획(올해대비) >

구분	축소			금년 수준	확대		
	대폭 축소	소폭 축소			소폭 확대	대폭 확대	
전 규모	8.5%	56.9%	65.4%	28.5%	6.2%	0.0%	6.2%
300인이상	11.5%	51.3%	62.8%	26.9%	10.3%	0.0%	10.3%
300인미만	3.8%	65.4%	69.2%	30.8%	0.0%	0.0%	0.0%

□ 응답 기업에게 올해(2020년) 연초 투자계획 대비 실제 투자집행 수준을 묻은 결과, '감소하였다'라는 응답이 62.3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○ '계획과 유사했다' 36.3%, '증가하였다' 1.4% 순으로 집계

< 표 6. 2020년 연초 투자계획 대비 실제 투자집행 수준 >

구분	감소하였다	계획과 유사했다	증가하였다
응답률	62.3%	36.3%	1.4%

3

응답 기업의 44.8%는 2021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「2.5% 초과~3.0% 이하」로 전망

※ 응답 기업들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.8%

□ 응답 기업의 44.8%는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(GDP 기준)을 '2.5% 초과~3.0% 이하' 수준으로 전망

○ 그 외 응답은 '3.0% 초과'(28.8%), '2.0% 초과~2.5% 이하'(18.4%), '2.0% 이하'(8.0%) 순으로 집계

< 표 7.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(구간별) >

구분	2.0% 이하	2.0% 초과~ 2.5% 이하	2.5% 초과~ 3.0% 이하	3.0% 초과
응답률	8.0%	18.4%	44.8%	28.8%

□ 응답 기업들의 2021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.8%로 나타남.

< 참고 > 국내외 주요기관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

구분	한국은행* (‘20.11.26)	KDI (‘20.11.11)	산업연구원 (‘20.11.25)	OECD (‘20.12.1)	IMF (‘20.10.13)
전망치	3.0%	3.1%	3.2%	2.8%	2.9%

*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진정 속도가 더디지거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'비관 시나리오'에서는 2021년 성장률을 2.2%로 전망

주 : ()안은 전망시점

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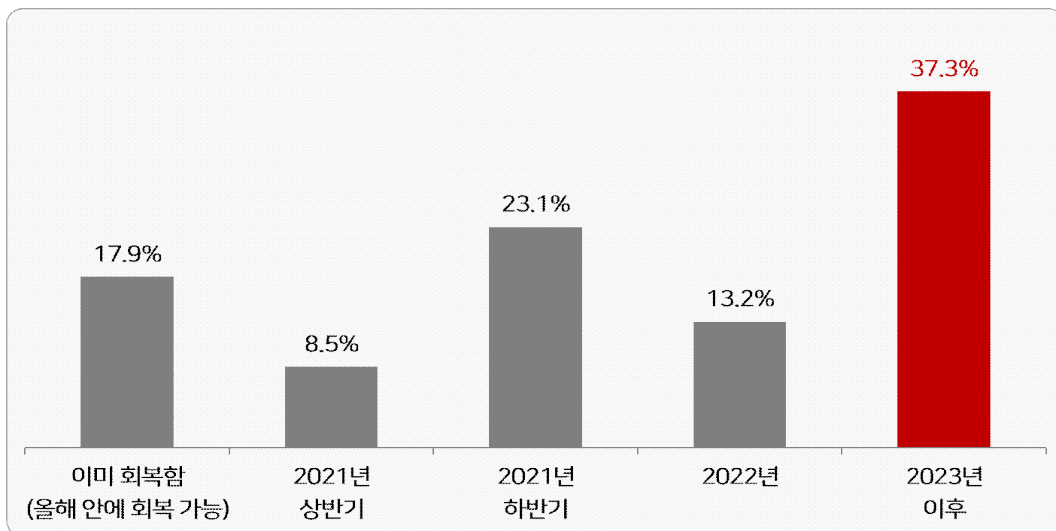
응답 기업의 37.3%가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시점은 「2023년 이후」라고 답변

- 기업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시점을 조사한 결과, '2023년 이후'라는 응답이 37.3%로 가장 높게 나타남. 위기의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상당수 기업들은 경영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.
- 그 외 '2021년 하반기' 23.1%, '이미 회복함(올해 안에 회복 가능)' 17.9%, '2022년' 13.2%, '2021년 상반기' 8.5% 순으로 나타남.
- '2023년 이후'라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(33.1%)보다 300인 이상 기업(42.9%)에서 높게 나타남.

< 표 8. 기업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예상 시점 >

구분	전체	300인 이상	300인 미만
이미 회복함(올해 안에 회복 가능)	17.9%	23.1%	14.0%
2021년 상반기	8.5%	11.0%	6.6%
2021년 하반기	23.1%	17.6%	27.3%
2022년	13.2%	5.5%	19.0%
2023년 이후	37.3%	42.9%	33.1%

< 그림 2. 기업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예상 시점 >



응답 기업의 52.8%가 2021년 영업이익 「올해보다 감소」 전망

- 2021년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응답 기업의 52.8%가 ‘올해(2020년)보다 감소할 것’이라고 답변
 - 그 외 ‘올해(2020년)보다 증가할 것’이라는 응답은 27.8%, ‘올해(2020년)와 유사할 것’이라는 응답은 19.3%로 집계됨.
 -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‘올해(2020년)보다 감소할 것’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.
 - ※ 300인 미만 기업 : 53.7%, 300인 이상 기업 : 51.6%

< 표 9. 2021년 영업이익 전망(2020년 대비) >

구분	전체	300인 이상	
		300인 이상	300인 미만
올해(2020년)보다 감소할 것	52.8%	51.6%	53.7%
올해(2020년)와 유사할 것	19.3%	17.6%	20.7%
올해(2020년)보다 증가할 것	27.8%	30.8%	25.6%

조사 개요

1. 조사목적

2021년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전망 및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, 향후 기업의 사업방향 설정과 정부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분석대상

전국 30인 이상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212개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.

※ 조사수행기관 : (주)글로벌리서치

3. 조사기간 : 2020년 11월 23일 ~ 12월 9일 < 17일간 >

4. 조사방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및 유선 조사를 병행하였음.

5. 주요 조사항목

- 2021년 경영계획 기초, 2021년 경영계획 수립 여부
- 2021년 투자, 채용계획 등 기업경영 관련 전망

6. 회수업체수

구분		회수업체수
전체		212개사 (100.0%)
기업규모별	300인 이상 기업	91개사 (42.9%)
	300인 미만 기업	121개사 (57.1%)